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IBDP 선택과목 탐색 — 국어과 관련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유상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 * 이 논문은 제71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2020.6.13.)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정토론으로 논의를 보강하는 데 도움을 주신 오현아 교수님(강원대)께 감사드린다.

- I. 들어가며
- II. 역량 중심의 IBDP 교육과정
- III. IBDP 국어과 선택과목의 역량 관련 특징
- IV.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구성을 위한 시사점
- V. 나가며

I.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교육부, 2018).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크게 강조된 것은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과목 선택이다(김란주·서경혜, 2018; 이광우·김진숙·이근호, 2017).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라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준다(교육부, 2020: 13). 고교학점제 안내 홈페이지도 선택과목 확장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해당 홈페이지 ‘과목 살펴보기’에는 7개의 교과영역(기초, 생활·교양, 전문교과1, 전문교과2, 체육·예술, 탐구) 내 31개의 교과(군)에서 무려 506개의 선택과목이 제시되어 있다.¹⁾ 선택과목

1) “고교학점제”, 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7월 1일 검색, <https://www.hscredit.kr/course/>

중에는 대학의 특정 전공 내 수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분화된 과목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교과1 영역 ‘기계’ 교과(군)의 경우 73개의 과목이 있는데, ‘사출 금형 설계’, ‘사출 금형 제작’, ‘사출 금형 품질 관리’와 같이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과목이 제시되어 있다.

획일적 교육을 넘어 고등학생에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도록 돕는 선택과목 확장은 우리나라 고교 교육에 새로운 기대와 가능성을 높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고등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섬세한 교육 설계가 중요하다. 홍후조(2001: 58)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 결과’가 초점, 계통, 계열, 순서, 중심”을 잃을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선택과 함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교학점제의 본격적 도입을 준비하는 이 시기, 고교 선택과목을 제공할 각 교과는 선택과목의 확장과 함께 선택과목 간의 연계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고교 선택과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국어과를 대상으로, ‘역량(competency)’을 중심에 둔 선택과목 구성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역량 개념을 총론 및 각 교과 교육과정에 도입하였다(교육부, 2015). 고교학점제는 해당 정책의 시작 취지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 확장에 있어, 아직 역량을 어떻게 고려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역량 교육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상황에서(소경희, 2007, 2011; 서영진, 2015) 고교학점제의 도입 이유 중 하나로 학생의 역량 함량이 제시된 점을 고려할 때(교육부, 2020), 고교학점제에서 역량을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화하는 것은 주요한 과제이다.

역량을 고려한 선택과목 구성 방안은 다각도로 탐색이 가능한데, 이 연구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라 여겨지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이후 IBDP)의 선택과목 구성을 분석하여, 고교학점제

master/portal/list.do.

에서 역량을 고려한 선택과목 구성을 위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IBDP를 선정한 이유는 IBDP가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을 넘어 아시아 지역까지 빠르게 확장된 국제공인 교육과정이며(BO, 2018), 학생의 선택과 함께 연계(making connections)를 강조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BO, 2019a). 특히 IBDP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손민호, 2018), 역량을 중심으로 선택과목들을 연계하고 선택과목 내에서도 역량을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IBDP 선택과목 분석은 우리나라 고교학점제가 역량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구성하는 것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II. 역량 중심의 IBDP 교육과정

1. IBDP 교육과정 개관

IBDP는 비영리국제기구인 IB 본부(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16-19세 학생들의 대학과 그 너머 삶을 성공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설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BO, 2019a).²⁾ IBDP에 소속된 모든 학교나 학급은 아래와 같은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

-
- 2) IB 본부는 초기에 외교관 자녀 등 여러 국가를 옮겨 교육받는 학생을 위해 국제학교에서 운영할 국제공통교육과정으로 IB의 학위 프로그램(Diploma Program)을 개발하였다. 이후 IB 본부는 중등 과정인 MYP(Middle Years Programme)와 유·초등과정인 PYP(Primary Years Programme) 및 직업 교육을 원하는 고등학생을 위한 CP(Career-related Programme)를 개설하여,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B 유·초·중등 자국어 교육과정은 이향근(2014) 참조.

〈표 1〉IBDP 교육과정 개요(IBO, 2012 재구성)

필수과목	6개 선택영역	세부 선택과목
• 지식의 이론	① 언어와 문학 연구 (자국어)	㉠ 언어 A: 문학 ㉡ 언어 A: 언어와 문학 ㉢ 문학과 연극
	② 언어 습득 (외국어나 고어)	언어 B, 언어 B 기초, 고전 언어
• 확장형 에세이	③ 개인과 사회	경영, 경제, 지리, 역사, 글로벌 사회의 정보기술, 철학, 심리학, 사회문화의 인류학, 등
• 창의·활동·봉사	④ 과학	생물학, 화학, 설계 공학, 물리학, 컴퓨터 공학 등
	⑤ 수학	수학적 연구, 추가 수학, 수학 기본, 수학 심화
	⑥ 예술	음악, 연극, 시각 예술, 댄스, 영화 등

IBDP는 3개의 필수과목과 6개의 선택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IBDP의 필수과목은 지식의 이론(Theory of Knowledge), 확장형 에세이(Extended Essay), 창의·활동·봉사(Creativity, Activity, Service, CAS)이다. 지식의 이론은 수업을 100시간 이상 들어야 하고, 확장형 에세이는 수업을 40시간 이상 들어야 하며, 창의·활동·봉사는 150시간 이상 수업과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³⁾

IBDP에는 총 6개의 선택영역이 있는데, ① 언어와 문학 연구(자국어), ② 언어 습득(외국어나 고어), ③ 개인과 사회, ④ 과학, ⑤ 수학, ⑥ 예술 영역이다. 학생들은 ①~⑤ 각 영역에서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⑥ 영

3) IBDP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은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IBDP 선택과목은 관련 학문 지식에 기반을 둔 탐구를 강조한다. IBDP는 필수과목으로 ‘지식이 이론’을 마련하여 지식 탐구의 전제를 학습한다. 지식을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논증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또한 IBDP는 필수과목으로 ‘확장적 에세이’를 마련하여 학생이 선택과목과 연계하여 자신이 선정한 주제를 주도적으로 탐구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문제인데, 선택과목 구성 방안을 탐색하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넘기에 후속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역의 경우, 해당 영역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거나 ①~⑤ 영역에서 추가로 한 과목을 더 선택할 수 있다. IBDP 선택과목의 경우, 학생이 스스로 기본 수준(Standard Level, SL)과 심화 수준(Higher Level, HL)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세 과목 이상 네 과목 이하를 반드시 심화 수준으로 이수해야 한다. 심화 수준을 선택한 과목은 총 240시간의 수업을, 기본 수준을 선택한 과목은 총 150시간의 수업을 받는다.⁴⁾

우리나라에서는 IBDP 관련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었고, 우리 국어 교과에서도 IB 자국어교육과정 전반을 논의한 이향근(2014)을 시작으로 IBDP 관련 연구가 축적되었다. 필수과목과 관련하여 ‘확장적 에세이’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박혜영·유상희, 2018; 곽수범, 2019). 선택과목 관련하여 최미숙(2018)은 ‘언어 A: 문학’을 중심으로, 박소은(2019)은 ‘언어 A: 언어와 문학’을 중심으로 IBDP 평가의 특징 및 국어교육 평가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송지연(2018)은 ‘언어 A: 문학’을 중심으로 IBDP 도입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국어교육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선행 연구들은 세부 과목을 중심으로 IBDP를 분석하여 국어교육에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하지만 국어과에서 역량에 초점을 맞춰 IBDP에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IBDP는 2019년 개정된 교육과정을 제시했는데 아직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국내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⁵⁾ 이에 이 연구

4) IBDP는 교육과정 이수에 관해 교육 기간인 2년 동안 과목별로 진행할 총 수업 시간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박하식 외(2013: 141)는 IBDP 이수 시간을 우리나라 ‘학기’와 ‘단위’ 개념으로 환산하였다. 현 국내 교육과정에서 1단위란 주 1회(50분), 1학기(17주) 수업을 의미하기에, IBDP 기본 수준 과목은 12단위(주 3회 4학기 또는 주 4회 3학기), IBDP 심화 수준 과목은 20단위(주 5회 4학기)라 할 수 있다.

5) IBDP는 7년 주기로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고 개정한다. 교육과정이 의도한 목적을 성취했는지 검토하고, 기존 교육과정 평가 결과 및 최근 교육 연구 결과를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다(IBO, 2017). 2019년부터 개정된 IBDP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2021년부터 개정된 평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는 2019 개정 IBDP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선택과목 구성의 역량 관련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역량 중심의 IBDP 교육과정

이 절에서는 역량의 개념과 역량 기반 교육 설계를 간략히 논의한 후, 역량을 중심으로 IBDP 교육과정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 전수에 집중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아는 것을 넘어 수행할 수 있는 앎이 부각되었다(박민정, 2009). 또한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학습한 지식이나 기능을 “표준화된 상황” 또는 “이상적인 모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 맥락의 차이를 반영하는 ‘맥락성’과 현재 맥락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태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총체성’이 강조되었다(Chamber, 1993: 791-792). 이러한 흐름에서 ①구체적 상황(과제)에서 ②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하여 ③실제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competency)이 기존 교육의 대안으로 강조되었다.⁶⁾

역량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역량 기반 교육 설계는 크게 두 가지로 전개되었는데, 범교과적 역량 접근과 교과 특수적 역량 접근이다(이광우·전제철·허경철·홍원표·김문숙, 2009; 소경희·강지영·한지희, 2013). 범교과적 역량 접근은 총론 차원에서 역량을 정의하고 하위 범주를 도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범주와 하위 역량을 제시하였다(OECD, 2005). 교과 특수적 역량 접근은 각 교과에서 핵심이 되는 역량을 제시한 뒤, 이를 귀납적으로 모아 핵심역량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영국, 독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교육과정이 있다(소경희 외,

6) 국내외 역량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는 소경희(2009), 최홍원(2013), 한혜정·김기철·이주연·장경숙(20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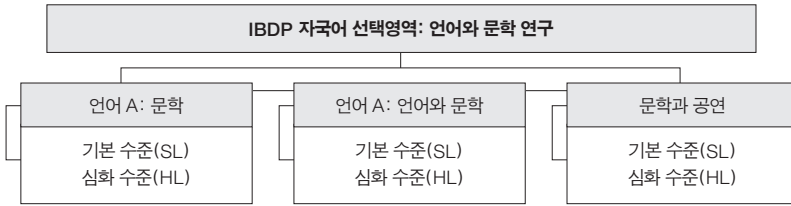
2013).

반면 IBDP는 총론에서 역량을 정의하거나 범주화하지 않고, 각 교과에서도 주요 역량을 명시적으로 규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IBDP는 기존에 역량 기반 교육을 설계하던 두 가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신 IBDP는 교육과정 차원에서 각 선택과목의 목표와 평가모형을 제시한 후, 각 과목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 및 과제의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IBDP 선택과목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해당 과목에서 학습한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실제적 수행 능력을 요구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IBDP를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IBDP는 통합적 과제를 중심으로 역량에 접근하는 새로운 유형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⁷⁾

III. IBDP 국어과 선택과목의 역량 관련 특징

이 장에서는 IBDP 국어과 관련 선택영역인 ‘언어와 문학 연구(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에서 선택과목 구성의 특징을 ‘역량’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⁸⁾

-
- 7) Garavan & McGuire(2001)은 두 가지 역량모형을 설명했다. 첫 번째는 행동역량모형으로 수행자에게 기대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조합으로 역량을 기술한다. 두 번째는 직무성과모형으로 직무 과제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역량을 설명한다. 기존 역량 기반 교육 설계는 소경희 외(2013)에서 범교과적·교과 특수적 역량 접근을 논의한 바와 같이 ‘학습자’를 중심에 둔 행동역량모형에 가깝다. 반면, IBDP는 과제 수행 능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직무성과모형에 관련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직무성과모형은 특정 직업을 중심으로 특정 과제에 대한 수행 자체를 목표에 두지만, IBDP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학습자의 성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형적 직무성과모형과 지향점에 차이가 크다.
- 8) 이 연구는 IBDP의 2019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IB 본부의 공식 웹사이트와 IBO 공식 문서를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IB 본부는 2019년 개정 이후, ‘언어 A: 문학’ 및 ‘언어 A: 언어와 문학’에 대해 2쪽짜리 요약(BO, 2019c; BO, 2019d)과 70쪽이 넘



〈그림 1〉IBDP 자국어 관련 선택영역 내 선택과목 구성

IBDP는 자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학 연구’라는 단일한 선택 영역이 있고, 해당 영역에는 ‘언어 A: 문학’, ‘언어 A: 언어와 문학’, ‘문학과 공연’이라는 세 가지 선택과목이 있다.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BDP의 모든 학생은 반드시 ‘언어와 문학 연구’ 영역 내 세 과목 중 한 과목을 기본 수준(150시간 이수)이나 심화 수준(240시간 이수)으로 이수해야 한다, 자국어 관련 의무 선택영역이 존재하고, 영역 내 세 과목 중 한 과목을 적어도 150시간, 3~4학기 동안 학습한다는 점에서 IBDP는 자국어 관련 제한된 과목 선택의 기회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IBDP ‘언어와 문학 연구’ 선택영역 내 선택과목들을 역량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기 전에, 선택과목 간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선택과목 간의 주요 차이점(IBO, 2019a: 7 재구성)

	언어 A: 문학	언어 A: 언어와 문학	문학과 공연
탐구의 주요 대상 텍스트	문학 텍스트	(다양한 매체에서 넓은 범위의) 문학과 비문학 텍스트	문학과 공연 텍스트

는 안내 책자(BO, 2019a; BO, 2019b)를 제시했다. 이에 이 연구는 해당 두 과목을 중심으로 2019 개정 IBDP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했다. IBDP 각 선택과목에 대한 안내 책자는 각 선택과목을 전체 교육과정 및 선택영역 내 다른 과목과 연계(link)하여 설명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문학과 연극’ 과목에 대해서는 ‘언어 A: 문학’ 소개 책자에서 ‘자국어 관련 선택영역 내 세 과목의 관계(relation)’ 부분을 참고했다(BO, 2019a: 19).

탐구의 주요 배경 학문 지식	텍스트 비평	문학 이론, 사회언어학, 매체 연구, 비판적 담화분석 등	관습적인 문학 분석과 공연의 실용적이고 심미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종합
--------------------	--------	------------------------------------	---

IB 본부는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 간의 주요 차이점으로 탐구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말한다(IBO, 2019a: 6). ‘언어 A: 문학’ 과목은 문학 텍스트를, ‘언어 A: 언어와 문학’ 과목은 문학 텍스트와 함께 비문학 텍스트를, ‘문학과 공연’ 과목은 문학 텍스트 중에서도 공연 관련 텍스트를 주요 탐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선택과목은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하는 배경 학문 지식에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IBDP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의 차이점과 함께 공통점에 주목한다. 선택과목 간 공통점은 IBDP가 각 선택과목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IBDP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은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선택과목에 동일한 목표와 평가모형을 역량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선택과목마다 역량 기반 과제 및 과제의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1. 선택과목 간 동일한 ‘역량 중심 목표’ 제시

IBDP는 2019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언어 A: 문학’과 ‘언어 A: 언어와 문학’ 선택과목에 동일한 학습목표를 역량을 중심으로 제시했다(BO, 2019c, BO 2019d). 이러한 변화는 IBDP가 자국어 관련 선택영역 내 선택과목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안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 다른 시대, 문체(style), 문화로부터 작성되어 다양한 매체와 형식에 존재하는 넓은 범위의 텍스트에 참여한다.
2.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보고 발표하고 공연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3. 해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4. 텍스트의 형식적·미적 특성에 대한 민감성과, 어떻게 이러한 특성이 다양한 반응 및 복합적 의미에 열려있도록 기여하는지 감상력을 기른다.
5. 텍스트 간 관계 및 다양한 관점, 문화적 맥락,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논점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러한 요소들이 다양한 반응 및 복합적 의미에 열려있도록 기여하는지 감상력을 기른다.
6. 언어와 문학 및 다른 분야 연구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킨다.
7.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동한다.
8. 언어와 문학에 대한 평생의 흥미와 즐거움을 증진한다.

〈그림 2〉 ‘언어와 문학’ 및 ‘문학’ 과목의 목표(IBO, 2019c, 2019d)

〈그림 2〉는 개정된 IBDP 교육과정에서 ‘언어 A: 언어와 문학’ 및 ‘언어 A: 문학’ 과목의 목표를 보여준다. 목표 2, 3, 7은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 목표 2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보고 발표하고 공연하는 언어사용 능력 발달을 목표로 둔다. 목표 3은 읽기 중에서도 텍스트를 해석하고 분석하며 평가하는 능력을, 목표 7은 자신감 있는 태도 및 창의적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동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목표 1은 2, 3, 7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범위의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목표 8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언어와 문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증진을 강조한다. 이처럼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에서는 탐구의 대상 텍스트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태도 증진을 목표로 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목표 4, 5, 6도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되지만, 해당 목표들은 특히 배경 학문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텍스트와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는 역량과 관련된다. 목표 4는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기 위해 배경 학문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 5는 텍스트 간 관계 및 맥락 요인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배경 학문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 6은 배경 학문 지식을 연계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즉, IBDP 선택과목에서는 해당 과목의 배경이 되는 학문 지식을 전달받아 습득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자 적용의 대상, 재성찰의 대상으로 접근하

고 있다.

더 나아가 목표 4, 5, 6은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와도 직접 관련된다. 2019년 개정 IBDP 교육과정은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에서 명시적으로 “탐구의 세 영역(three areas of exploration)”을 제시했다(IBO, 2019a: 19). 탐구의 세 영역은 ‘①독자-필자-텍스트 간 상호작용의 본질에 대한 탐구’, ‘②어떻게 텍스트가 시간과 공간에 상호작용하는지 탐구’, ‘③어떻게 텍스트가 서로 연관되었는지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탐구’로 구성되어 있다(BO, 2019a: 19).

〈표 3〉 선택과목의 교육과정 구성요소(BO, 2019c, 2019d)

교육과정 구성요소	추천하는 교육 시간	
	기본 수준	심화 수준
독자, 필자 및 텍스트	50	80
시간과 장소	50	80
상호텍스트성: 텍스트의 연계	50	80
총 교육 시간	150	240

〈표 3〉은 2019년에 개정된 ‘언어 A: 문학’ 및 ‘언어 A: 언어와 문학’의 교육과정 구성요소로, 탐구의 세 영역이 교육과정 내 시간 배분의 기준으로 설정된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언어 A: 언어와 문학’ 과목의 경우 첫 학기에 독자와 필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두 번째 학기에 지역적 거리나 역사적 시간 등 맥락 고려에 초점을 맞추어, 세 번째 학기에 여러 텍스트 간의 관계 등 상호텍스트성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를 탐구할 수 있다.

IBDP 자국어 관련 모든 선택과목은 탐구의 세 영역과 함께 텍스트 탐구를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7개의 개념으로 정체성, 문화,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관점, 변화(transformation), 표상(representation)을 제시한다(BO,

2019a: 19).⁹⁾ IBDP 국어과 관련 선택과목에서는 이러한 다층적 텍스트 접근을 통하여 학습자가 삶과 연관된 주제를 탐구하고, 탐구를 바탕으로 주제에 대해 확장된 이해를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는 순환적 탐구를 강조한다.

이처럼 IBDP 국어과 관련 선택과목은 의사소통 역량과 함께 탐구 역량을 주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IBDP가 추구하는 탐구 역량을 ‘지식 기반 탐구 역량’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지식 기반 탐구 역량’이란 학습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자원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텍스트나 주제를 탐구하는 총체적 수행 능력을 말한다. IBDP 교육과정의 경우 국어과 관련 모든 선택과목에서 ‘지식 기반 탐구 역량’을 강조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통하여 해당 역량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2. 선택과목 간의 동일한 ‘역량 중심 평가모형’ 제시

IBDP는 2019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국어 관련 선택영역 내 서로 다른 선택과목에 동일한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IBO, 2019c, 2019d). 이는 선택과목 간의 동일한 목표 설정과 연계되어, 해당 선택과목에서 학습자에게 유사한 역량을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4〉 ‘문학’ 및 ‘문학과 언어’ 선택과목의 평가모형(IBO, 2019c)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2. 분석하고 평가하기	3. 소통하기
• 텍스트, 작품(works), 공연의 범위 및 그들의 의미와 시사점 • 텍스트가 작성되고 수용되었던 맥락 • 문학적, 문체적, 수사학적, 시각적, 공연적 요소 • 특정한 텍스트 유형의 특징 및 문학의 형식적 특징	• 언어 사용이 의미를 창조하는 방식 • 문학적, 문체적, 수사적, 시각적, 연극적 기술의 사용과 효과 • 다른 텍스트 간의 관계 • 텍스트가 인간의 관심사에 관점을 제공하는 방식	• 분명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아이디어 • 문체와 사용역(register)의 범위 및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서 • (문학과 공연의 경우) 공연을 통해 아이디어, 감정, 캐릭터, 환경

9) IBDP 국어과 관련 선택과목에서 탐구의 세 영역과 핵심 개념들도 선택과목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역량’ 중심의 선택과목 연계에 초점이 있기에 이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IBDP 선택과목의 평가모형은 각 선택과목 내 평가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작점으로, 해당 과목 평가의 대범주로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분석하고 평가하기, 소통하기’를 제시한다. 평가모형에서 주목할 점은 지식과 기능을 평가 범주에서 분류하지 않고, 지식을 적용한 수행을 중심으로 평가 범주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얇은 기반을 둔 수행을 강조함을 볼 수 있다.

3. 선택과목마다 역량 기반 과제 제시

IBDP 교육과정은 위와 같은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자국어 관련 모든 선택과목(기본 수준과 심화 수준)에서 진행될 공식적 평가(formal assessment)의 구체적 과제를 안내한다. <표 5>는 ‘언어 A: 언어와 문학(심화수준)’ 과목에 대한 과제 안내이다.

<표 5> ‘언어 A: 언어와 문학’ 선택과목(심화 수준)에 대한 과제 안내 (IBO, 2019b)

평가유형		심화 수준			
		과제	텍스트의 특성	시간	비중
외부 평가	Paper 1	텍스트 두 편이 제시되고 텍스트마다 서로 다른 질문이 제시됨. 각 텍스트에 대해 제시된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	수업에서 학습하지 않은 텍스트, 서로 장르가 다른 두 개의 비문학 텍스트	2시간 15분	35%
	Paper 2	학생은 제시된 네 개의 질문 중 하나를 택한 후, 두 편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에세이 작성	학생은 수업에서 학습한 텍스트 중 두 편을 선택	1시간 45분	25%
	심화 수준 에세이	수업에서 학습한 텍스트에 대한 에세이 제출. 에세이 길이는 반드시 1200- 1500 단어(words)	학생은 수업에서 학습한 텍스트 내에서 ①비문학 텍스트 한 편, ②한 작가에 의해 쓰인 비문학 텍스트의 모음, ③문학 텍스트 한 편 중 선택		20%

내부 평가	개별 구두 평가	학생은 제시된 질문에 대해 두 텍스트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10분간 발표 후 5분간 교사와 질의응답. 해당 내용은 녹화되어 교사에 의해 평가되고, 과목이 끝날 때 IB 본부에서 조정. *질문: 학생은 두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에서 국제적 논점이 표현된 방식을 조사하시오.	학생은 수업에서 학습한 텍스트 내에서 비문학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를 한 편씩 선택한 후, 자신이 선정한 국제적 논점(global issue)과 관련된 내용 발췌	총 15분 (10분 발표, 5분 질의 응답)	20%
----------	----------------	---	--	---	-----

IBDP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은 외부 평가 80%와 내부 평가 20%로 구성된다. 내부 평가는 선택과목 수업 중에 시행되는 반면, 외부 평가는 선택 과목에 대해 3~4학기 동안의 수업이 이루어진 후 졸업시험에서 시행된다.¹⁰⁾ Paper 1은 수업에서 학습하지 않은 텍스트가 제시되어 학습을 통해 증진한 역량을 새로운 과제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Paper 1의 문항으로 만화 텍스트를 제시하면서 “예술가는 그가 이해하는 난민 캠프를 전달하기 위해 만화의 어떤 특성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Philpot Education, 2020).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은 만화의 특성 및 저자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학생은 관련 지식 중에서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고 적용하여 해당 만화에 사용된 방법 및 효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제출해야 한다.

10) IBDP 외부평가인 졸업시험은 마지막 학년 5월이나 11월에 IB 본부에서 출제한 국제적으로 동일한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IBDP 프로그램에서 각 선택과목은 최고 점수가 7점(점수의 범위: 1~7점)으로 모든 선택과목에서 7점을 받으면 총 42점을 받는다. 필수과목인 ‘지식의 이론’과 ‘확장형 에세이’는 함께 성적을 받는데 최고 점수가 3점이다. 따라서 IBDP에서 최고 득점은 45점이다.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3가지 필수과목과 6가지 선택과목 이수(3과목 이상 심화 단계)를 충족하고 총점으로 최소한 24점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학위를 받지 못하고 수료증(certificate)을 받게 된다(IBO, 2019a). IBDP의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보완적 관계에 대해서는 최미숙(2018) 참조.

IBDP 선택과목 평가는 학생의 텍스트 선택을 강조한다. 전체 평가의 35%에 해당하는 Paper 1 이외의 모든 평가는 학생이 선택과목 수업에서 학습한 텍스트 중 스스로 선택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또한 IBDP 평가는 학생의 탐구 질문 선택이나 생성을 강조한다. Paper 2의 경우 학생이 제시된 네 개의 질문 중 하나를, 개별 구두 평가의 경우에도 학생이 탐구하고자 하는 국제적 논점을 직접 선택한다. 더 나아가 ‘심화수준 에세이’의 경우, 학생이 탐구하고자 하는 질문을 스스로 생성한다. IBDP 선택과목 평가에서 대상 텍스트와 주제, 질문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강조는 선택과목 내에서 학생에게 어떠한 선택권을 부여할지, 특히 선택과목 내 평가에서 학생에게 어떠한 선택권을 부여할지 고민하게 한다.

4. 선택과목에서 평가모형과 연계된 과제의 평가기준 제시

IBDP 교육과정은 각 선택과목에서 시행할 공식적 평가 과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제가 어떻게 채점될 것인지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표 6>은 ‘언어 A: 언어와 문학(심화)’ 과목에서 외부 평가 과제 중 하나인 Paper 1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여준다.¹¹⁾

<표 6> ‘언어 A: 언어와 문학(심화)’ Paper 1의 평가기준

평가의 목적	어떻게 평가의 목적이 해당 과제에서 다루어지는가?	평가기준	
		주요 질문	만점 수준에 관한 기술
알고, 이해 하고,	학습하지 않은 비문학 지문에 응답하는 것은 텍스트와 텍스트 유형에	• 학생은 텍스트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응답은 텍스트의 축자적 의미(literal meaning)에 대해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11) IBDP (2019b: 16-18, 33-59)는 선택과목마다 공식적으로 제시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IBDP는 각 평가기준에 대해 수준을 6등급(0점~5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표 6>에서는 공간의 한계를 고려하여 만점에 관한 기술만 인용했다.

해석하기		대한 지식과 이해 및 텍스트로부터 고유한 해석을 세우는 능력을 요구한다.	- 결론을 도출하였는가? - 자신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텍스트를 인용하여 뒷받침하였는가?	이해를 증명했다. 텍스트의 하위 제목과 더 넓은 시사점에 대해 설득력 있고 통찰력 있는 해석이 있다. 텍스트로부터 참조 사항은 잘 선택되고 학생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분석하고, 평가하기		학습하지 않은 비문학 텍스트를 탐구하여 어떻게 필자의 선택이 의미에 기여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학생은 텍스트의 특성 및 필자의 선택이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 얼마나 잘 분석하고 평가하였는가?	응답은 텍스트의 특징 및 필자의 선택에 대한 통찰력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을 증명한다. 어떻게 이러한 특징과 선택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지 매우 훌륭히 평가했다.
소통하기	초점과 구조	초점화되고 잘 구성된 반응을 공식적 에세이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응답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아이디어가 얼마나 잘 조직되고 일관성 있으며 초점화되어 있는가?	아이디어가 효과적으로 조직되었고 일관성이 있다. 분석은 초점화되어 있다.
	언어		- 얼마나 분명하고 다양하며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 사용역(register)과 양식(style)의 선택은 얼마나 적절한가?	언어는 엄선되고 분명하며 효과적이고 문법, 단어, 문장 구성에서 정확도가 높다. 또한 사용역과 양식이 과제에 효과적이고 적절하다.

IBDP는 선택과목 내 각 과제의 평가기준을 평가모형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각 과제에 대한 평가기준은 평가모형에서 제시된 세 가지 평가의 목적과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표 6>에서 ‘어떻게 평가의 목적이 해당 과제에서 다루어지는가?’라는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과제가 평가모형에서 제시된 평가의 목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가모형의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범주에서 “학습하지 않은 비문학 지문에 응답하는 것은 텍스트와 텍스트 유형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텍스트로부터 고유한 해석을 세우는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IBDP 교육과정에서 공식적 평가로 제시된 모든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과제들은 평가모형에서 제시된 세 범주(‘알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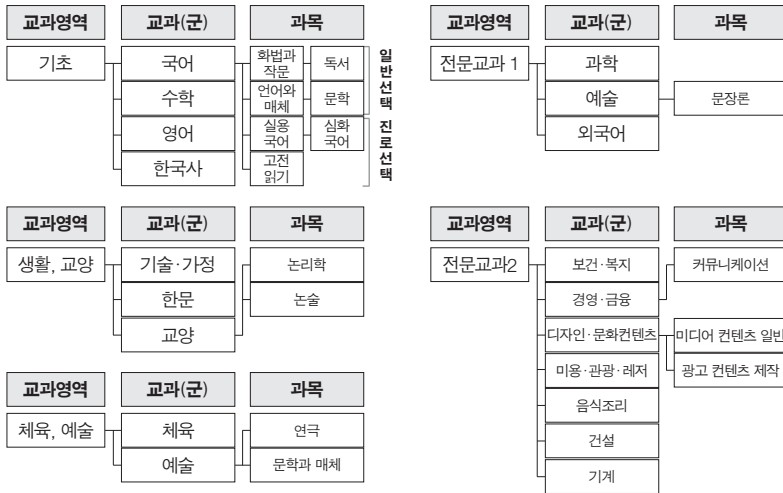
하고 평가하기’, ‘소통하기’)를 통합적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과제마다 텍스트를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평가하는 능력과 이러한 내용을 한 편의 글로 초점화하여 조직하는 능력 및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께 평가한다.

역량이 총체적 문제(과제) 해결 능력이라 할 때, IBDP 자국어 관련 선택 과목에서 제시된 모든 과제는 학생이 제시된 질문 또는 자신이 생성한 질문에 관해 탐구하는 능력 및 이를 말이나 글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연계하여 평가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IBDP는 선택과목마다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제 및 과제에 대한 구체적 성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총체성을 고려한 역량 평가방안을 제안한다고 할 수 있다.

IV.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구성을 위한 시사점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에서 제안된 국어과 관련 선택과목을 IBDP와 비교하여, 고교학점제에서 선택과목을 구성할 때 고려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¹²⁾ 이에 앞서,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과목 살펴보기’에 제시된 국어과 관련 과목들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12) 고교학점제에서 제안된 선택과목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고교학점제 공식 홈페이지 및 교육부(2020)가 발간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안내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는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 중이기에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해당 자료들이 고교학점제 정책의 진행 방향을 잘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그림 3〉 고교학점제에서 제시된 국어과 관련 선택과목

고교학점제 ‘과목 살펴보기’에서 국어과와 연관되어 보이는 선택과목은 총 15과목이다. 기초 영역에는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7가지 선택과목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생활·교양 영역, 전문교과2 영역, 체육·예술 영역에서도 국어과와 긴밀히 관련되어 보이는 8개의 선택과목을 볼 수 있다. 실제 각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¹³⁾ IBDP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에서 국어과 관련 선택과목이 훨씬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1. 고교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구체화

고교학점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역량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직업

13) 고교학점제에서 각 학교는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식으로 선택과목을 구성할 수 있기에, 고등학교마다 국어과 관련 선택과목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교육부, 2020: 43).

세계와 고용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진로 개척 역량” (교육부, 2020: 11),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 (교육부 2020: 21), “생애 전반에 걸쳐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교육부, 2020: 79)이 있다. 이 역량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된 여섯 가지 핵심역량 중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교육부, 2015: 2). 고교학점제 정책이 학습자의 자기관리역량 증진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는 아직 자기관리역량 이외에 다른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나 어떻게 이러한 역량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구성할지 구체화되지 않았다. 역량 기반 교육 설계는 총론에서 범교과 핵심역량을 선정한 후 각 교과가 관련된 역량을 선택적으로 다루는 총론 중심 접근이나, 교과 고유의 역량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핵심역량을 도출하는 방안이 가능하다(소경희 외, 2013). 고교학점제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유지한다면 총론 중심 접근을 취할 것인지, 교과 중심 접근을 취한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관리역량 등 무엇을 핵심역량으로 추구할 것인지 구체화가 필요하다.

서영진(2015: 293-294)은 “각 교과가 교과 고유 역량을 제각각 내세우게 될 때, 한정된 교육과정 자원 안에서 그 함양 기회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 집중되는 역량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미래 사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임에도 어느 하나의 교과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누락되는 역량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확장하지만 누락되는 핵심역량이 없도록 역량 차원의 검토가 중요하다.

고교학점제의 연구학교 운영 방안을 참고하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교과 구분 없이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교육부, 2020: 44). 제시된 예시에는 교과 영역(기초, 생활·교양, 전문교과1, 전문교과2, 탐구, 체육·예술) 내에서 교과 간 구

분 없이 과목 선택이 가능한 1안, 일부 교과 영역 간 칸막이 없이 과목 선택이 가능한 2안, 모든 교과 영역에서 자유롭게 선택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3안이 제시되어 있다. 세 가지 안 중 가장 선택의 폭이 좁은 1안의 경우에도 고등학생은 기초 영역에서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극단적인 경우 국어와 관련 선택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IBDP는 모든 학생에게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을 의무화하고 있다. IBDP는 모든 학생에게 의사소통 역량 함양이 필요하다고 보아, 모든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자국어 관련 과목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IBDP는 자국어 관련 모든 선택과목에서 지식 기반 탐구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IB 본부는 고등학생 과정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CP(Career-related Programme) 교육과정과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IBDP 교육과정의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 IBDP 교육과정에서 지식 기반 탐구 역량을 강조한 점은 관련 학문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역량이 대학을 진학할 모든 고등학생에게 필수 역량으로 접근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교학점제를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핵심역량이 어떻게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통하여 함양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에서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에게 서로 유사하게 또는 다르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있는지 구체화하여 이를 선택과목 구성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2. 역량을 고려한 선택과목의 구성

역량을 고려한 국어과 선택과목 구성을 위해 고교학점제 전반에서 추구하는 역량과 관련하여 국어과에서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위해 국어과 관련 선택과목을 어떻게 구성할지 구체화가 필요하다. 국어과 관련 선택과목에서 추구할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본 연구

의 범위를 넘어,¹⁴⁾ 이 절에서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기반 선택과목과 IBDP 선택과목에서 추구하는 역량을 논의하면서, 고교학점제에서 역량을 고려한 국어과 선택과목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의 7과목은 각 선택과목에서 추구하는 역량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6가지 핵심역량(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제시했다(교육부, 2015). 각 선택과목 교육과정은 성격 설명에서 여섯 핵심역량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1~2문단으로 간단히 설명한다.

각 선택과목 교육과정은 성격 설명에서 여섯 핵심역량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1~2문단으로 간단히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각 선택과목이 추구하는 역량의 방향성만 보여주기에, 실제 이러한 역량이 각 과목에서 어떻게 함양될 수 있는지 과목 설계에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국어과 관련 모든 선택과목은 동일한 핵심역량을 제시하는데, 각 선택과목은 동일한 핵심역량을 증진하는지 아니면 핵심역량의 서로 다른 부분을 보완적으로 증진하는지 등 선택과목 구성과 핵심역량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선택과목을 정할 학생을 역량 차원에서 안내하기 위해 각 선택과목에서 증진하는 핵심역량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IBDP는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선택과목의 목표와 평가모형, 공식적 평가 과제와 평가기준을 역량을 중심으로 제시한 특징이 있었다. 특히 IBDP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의 목표와 평가모형, 과제와 평가기준은 수행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었는데 요구되는 수행의 핵심에는 ‘지식 기반 탐구’와 이러한 탐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

14) 국어과 핵심역량의 요소를 탐구한 연구로는 서영진(2015) 참조.

있다. 이에 IBDP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에서 추구하는 역량으로 지식 기반 탐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도출하였다.

이를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계해보면, IBDP가 탐구 과정에서 텍스트 활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자료·정보 활용 역량이, 대상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과정에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이 밀접하게 관련된다. 또한 IBDP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은 탐구를 위해 배경 학문 지식의 이해 및 적용이 중요한데,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배경 학문 지식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제시되는 언어(매체언어 포함)의 특성 및 ‘문학’ 과목에서 제시되는 문학 작품의 표현 방식과 관련된다. 즉, IBDP는 수행 중심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데, 실제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등 사고력과 함께 관련 지식을 아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추구하는 역량에 있어서 IBDP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과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두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의 제시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 내 성취기준을 일부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 내 성취기준의 예시

‘화법과 작문’에서 작문의 원리 관련 성취기준의 예시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2)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3)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와 매체의 본질 관련 성취기준의 예시	(12언매01-01)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12언매01-02)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의 국어의 위상을 이해한다. (12언매01-03)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12언매01-04) 현대 사회의 소통 현상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문학'에서 문학의 수용과 생산 관련 성취기준의 예시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12문학02-06)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한다.
-------------------------------------	--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표 7>과 같이 각 선택과목에서 구체적 성취기준을 제시한다. 반면 IBDP는 위의 성취기준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어과 선택과목은 과목마다 서로 다른 성취기준을 제시한다. 반면 IBDP는 선택과목마다 서로 탐구하는 텍스트와 중점을 두는 배경 학문에 차이가 있지만, 각 과목에서 시행되는 과제와 평가기준을 분석하면 세 선택과목에서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유사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취기준 기반 교육과정과 과제 기반 IBDP 교육과정을 비교하기 위해 IBDP '언어 A: 언어와 문학' 선택과목에서 공식 과제 중 하나인 심화 수준 에세이를 작성하는 학생을 가정할 수 있다.¹⁵⁾ 이 학생은 수업에서 학습한 이민 소설 한 편에 대해 저자가 우리나라로 중도 입국한 주인공의 어려운 상황과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탐구하려 한다. 이 학생은 소설 속에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을 분석하고 이러한 텍스트 증거를 바탕으로 표현의 효과 여부에 관해 주장하는 글을 쓰려 한다. 따라서 이 학생이 수행하는 심화 수준 에세이 과제는 '화법과 작문' [12화작03-04] 성취기준과 관련된다.

이러한 탐구를 위해 이 학생은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학습했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지식, 특히 언어기호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비유적 표현을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 측면에서 효과를 논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언어와 매체' 선택과목의 [12언매01-01] 성취기준과 관련될

15) 우리나라는 독립된 문학 시간이 있어 작문 시간에 문학 작품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IBDP의 모든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은 문학 텍스트를 핵심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수 있다. 또한 이 학생은 소설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에 대해 창의성과 심미성 측면에서 효과를 논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문학’ 선택과목 [12문학02-06] 성취기준과 관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학생은 먼저 소설 속 저자의 (비유적) 표현 방식을 분석하고, 이어서 이러한 표현 방식의 효과 여부를 평가하려 한다. 첫 번째 부분은 [12화작03-01] 성취기준과 연계되는데, 소설 속에서 비유적 표현을 선별하고 어느 곳에 어떠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이어서 이러한 표현이 효과적이었는지 판단 근거를 설정하고 앞에서 수집한 텍스트 증거를 바탕으로 효과 여부를 주장하는 글을 쓴다. 이는 [12화작03-04] 성취기준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해당 과제는 작문 선택과목에서 제시된 여러 성취기준이 복합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탐구를 위해 이 학생은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학습했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지식, 특히 언어기호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비유적 표현을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 측면에서 적절성과 효과를 논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언어와 매체’ 선택과목의 [12언매01-01] 성취기준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이 학생은 소설에 사용된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을 창의성과 심미성 측면에서 효과를 논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문학’ 선택과목 [12문학02-06] 성취기준과 관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IBDP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서로 유사한 성취기준을 다루지만, IBDP는 공식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성취기준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하여,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각 선택과목에서 서로 다른 성취기준을 분절적으로 제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선택과목 내 성취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학습자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목을 선택하여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은 “범교과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띠며, 개별 교과나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계성”을 강조한다(김창원 외, 2015: 62-68). 이에 역량 함량의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선택과목마다 분절된 성취기준

을 제시하는 방식은 재고찰될 필요가 있다.

3. 역량을 고려한 평가방안의 마련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 평가 내실화를 위한 수업 내 평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교육부, 2020). 고교학점제에서 제안한 평가와 IBDP의 평가는 학습을 위한 평가, 과정 평가, 수행평가 및 성취평가(절대 평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방향이 일치한다. 두 평가의 주요한 차이점은 평가의 요소를 도출하는 데 성취기준이 작동하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성취기준 기반 평가를 염두에 둔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안내서’는 성취기준이 “교수·학습과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므로 수행평가는 반드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해야 평가의 타당성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교육부, 2020: 114). 또한 수행평가의 계획 과정으로 ①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관련 평가요소의 구체화, ② 정해진 성취기준과 평가요소를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 방법 선정, ③수행평가 과제, 채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안내한다. 우리나라 고교학점제는 각 선택과목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성취기준을 중심에 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교평가제에서 강조되는 수행평가는 지식에 대한 암기가 아닌 수행으로 나타나는 앎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성취기준 기반의 수행평가는 맥락성과 총체성을 고려할 때 역량 평가로서 한계가 크다. 손민호(2018: 104)는 역량이 수행 능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역량은 “불확실한 예측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수행 능력은 “알고 있는 지식의 예측 가능한 적용”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수행평가는 정해진 지식과 기능을 정확히 적용하는 낮은 수준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지만 주어진 상황의 특성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들을 선정하고 결합하여 활용하고 응용하는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지만, 지식, 기능, 태도를 분절하여 진술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진술한 성취기준¹⁶⁾은 이를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구성하였을 때 학습자의 맥락 고려 능력(예를 들어, 맥락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식과 기능을 스스로 선정하는 능력)을 보기 어렵다. 고교학점제가 역량 기반 교육을 목표로 한다면 맥락에 기반을 둔 총체적 역량 평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IBDP는 선택과목에서 성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선택과목마다 공식적 평가(formal assessment)로 진행될 과제 및 과제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해당 과제들은 선택과목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교학점제에서도 맥락성과 총체성을 고려한 역량 기반 평가를 위해, 각 선택과목에서 공식적으로 평가할 과제 및 과제의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에서 학생 평가를 내실화하고자 할 때 IBDP가 공식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수업 내 평가를 이끄는 방안도 참고할 만하다. IB 본부는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이 교육과정의 목표를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을 돕는 것이라 하면서, 평가가 교수학습의 필수적 요소라고 설명한다(IBO, 2019a: 31). 더 구체적으로 IBO(2019a)는 <표 5>에 제시된 공식적 평가(formal assessment)와 유사한 과제를 수업에서 제시하여 학생의 포트폴리오(learner portfolio)를 구성하라고 제안한다. 이에 교사는 <표 6>와 같은 공식적 평가 내 과제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해당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학생들은 수업 과제에서 이러한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요

16)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은 특정한 지식과 기능(수행)이 연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12화학03-02]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와 같은 성취기준이 있다. 작문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대부분의 글쓰기에서 요구되는데, 해당 성취기준에서는 특별히 자기 소개 글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성취기준은 적어도 하나의 성취기준에서 주요한 지식과 기능을 연계하여 수행해본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적의 지식과 수행을 연계하여 수행으로서의 값을 추구한다는 장점도 크다. 하지만 이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역량 차원에서는 맥락성과 총체성이 낮은 평가가 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구되는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선택과목에서 진행될 공식적 평가를 과제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선택과목 수업 및 수업 내 평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고교학점제의 경우, 제시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 평가 과제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수업을 진행할 교사의 역할로 접근하고 있다. 교사 혼자서 총체적 역량을 측정하는 과제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고교학점제에서도 고등학생의 역량 기반 평가를 누가 어떻게 구성할지 탐구와 논의가 요구된다.

4. 선택과목 내 학생의 주체적 선택 고려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한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란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면서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다(교육부, 2020: 43). 학생 중심 교육과정 대한 설명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핵심에는 학생의 자율적인 과목 선택이 있다.

IBDP는 고등학생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범위의 과목 선택을 제시한 반면, 각각의 선택과목 내 과제 수행에서 학생의 텍스트 선택 및 탐구 주제 선택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IB 본부는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될 평가를 소개하면서, 변화의 핵심은 과제 내 학생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IBP, 2019a). ‘개별구두평가’의 경우, 개정 전 내부평가에서 과제에 따라 학생에게 텍스트 선택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탐구 질문을 제한했는데, 학생이 텍스트 및 탐구 질문을 모두 선정할 수 있도록 내부평가를 변경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점은 IBDP가 학생에게 과목 선택을 폭넓게 제공하지 않지만, 과목 내에서 학생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의 선택과목에서는 학생에게 어떠한 선택권

을 줄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 특히 학생의 주체적인 탐구를 돕는 과제 및 평가방안 제시를 고심하게 한다. 우리 고교학점제에는 각 선택과목 내에서 학생의 선택으로 어떤 점이 고려될 수 있을지 심도 있는 탐구와 논의가 요구된다.

V. 나가며

이 연구는 2019년에 개정된 IBDP의 선택과목 구성을 역량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우리나라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BDP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은 탐구 대상 텍스트 및 배경 학문 지식에 차이가 있지만, 역량과 관련된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에서도 선택과목을 확장하는 것과 동시에 선택 과목 간의 연계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를 통하여 학생의 역량 증진을 목표에 둔다면, 고교학점제를 통하여 증진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의 역량을 구체화하는 것과, 역량 차원에서 선택과목을 구성하고 교사와 학생에게 이에 대한 정보 제시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IBDP 자국어 관련 선택과목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제 및 과제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수업 평가를 견인하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마다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각 과목을 진행하는 교사가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과제 개발을 가정하고 있다. 성취기준 기반 수행평가는 수행할 수 있는 앎을 평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맥락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능을 학생 스스로 선정하고 종합하는 능력은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각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역량 기반 평가를 홀로 구성하

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서 수행성, 맥락성, 총체성을 고루 고려한 역량 기반 평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BDP는 학생들에게 제한된 선택과목을 제시하였지만, 과목 내에서 학생에게 탐구 텍스트 선정 및 탐구 질문 선정 등 다양한 선택권 부여를 강조했다. 반면 우리 고교학점제 담론에서는 ‘과목 선택’이 학생 선택권 논의의 초점이 있었다. 학생에게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 각 선택과목 내에서 어떠한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과 탐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역량 중심의 선택과목 구성 방안을 탐색하는 시론 성격의 연구로, 고교학점제가 학습자의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에 둘 때 고려할 주요한 사항들을 IBDP 선택과목 분석을 바탕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기본적 전제 차원에서 고려할 만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적 교육과정으로 태어난 IBDP의 교육방안을 문화와 제도가 다른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IBDP의 특성 중 우리에게 의미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시사점을 얻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전향적 관점은 유용하다(최미숙, 2018: 287).

고교학점제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우리 교육 맥락에 적합한 고교학점제를 구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총론과 교과, 교과 간과 교과 내 심층적 탐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서 학생들의 삶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고교학점제로 전진하길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0.7.31. 투고되었으며, 2020.8.21. 심사가 시작되어 2020.9.1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곽수범(2019), 「IB 교육과정 도입에 관한 국제 동향과 비판적 고찰 I」, 『리터러시연구』 10(4), 1-31.
- 교육부(2018),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교육부 보도자료 2018.08.17.)』,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0),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안내서(연구자료 ORM 2020-22)』, 세종: 교육부·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란주·서경혜(2018), 「‘고교학점제’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과정연구』 36(1), 113-138.
- 박민정(2009),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과 비판적 쟁점 분석: 내재된 가능성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7(4), 71-94.
- 박소은(2019),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의 평가 체제 연구」, 『국어교육연구』 69, 65-90.
- 박혜영, 유상희(2018), 「IB 확장형 에세이(extended essay) 평가의 특징과 함의 탐색」, 『작문연구』 38, 89-117.
- 서영진(201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 공통 교육과정 ‘국어’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6, 67-106.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소경희(2009),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27(1), 1-20.
- 소경희·강지영·한지희(2013), 「교과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역량 모델의 가능성 탐색: 영국, 독일, 캐나다 교육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3(3), 153-174.
- 손민호(2018), 『고교 단계 IB AP 교육과정 적용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송지언(2018), 「해의 교육과정의 유입과 국어교육의 대응」, 『국어교육』 163, 57-92.
- 이광우·김진숙·이근호(2017),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고교 교육과정 방향 탐색 연구: 학습자 중심 고교학점제 실행 방향 및 과제(연구보고 CRC 201709)』,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광우·전제철·허경철·홍원표·김문숙(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방안 연구(연구보고 RRC 2009-10-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향근(2014),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언어교육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초등교육』 78, 91-110.
- 최미숙(2018),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평가 연구」, 『새국어교육』, 116, 255-291.
- 한혜정·김기철·이주연·장경숙(2018),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 분석 및 쟁점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1(3), 1-24.

- 한혜정·박소영(2009), 「IB와 호주의 VCE가 우리나라 대학입시성적 산출 방식에 주는 시사점 탐색」, 『비교교육연구』 19(1), 83-109.
- 홍후조(2001), 「선택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 ‘과목’ 선택 ‘교과영역’ 선택」, 『교육과정연구』 19(2), 53-76.
- Chambers, D. W. (1993), "Toward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Journal of dental education* 57, 790-790.
- IBO(2012), The IB Diploma Program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검색일자 2020. 8. 1., 사이트 주소 https://www.ibo.org/globalassets/publications/become-an-ib-school/ibdp_en.pdf.
- IBO(2017), *What is an IB education?*, Switzerland: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 IBO(2018), "Find in IB World School", 검색일자 2020. 7. 31., 사이트 주소 <http://www.ibo.org/programmes/find-an-ib-school/>.
- IBO(2019a), *Language A: literature guide*, Switzerland: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 IBO(2019b), *Language A: language and literature guide*, Switzerland: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 IBO(2019c), *Language A: literatur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Subject Brief*, Switzerland: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 IBO(2019d), *Language A: language and literatur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Subject Brief*, Switzerland: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 Philpot Education(2020), 검색일자 2020. 8. 10., 사이트 주소 https://www.philpoteducation.com/pluginfile.php/14217/mod_page/content/24/P1Ex1Text.pdf.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IBDP 선택과목 탐색

— 국어과 관련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유상희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총론 차원의 준비와 함께 교과 차원에서 선택과목 구성 방안에 관한 탐구와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IBDP 국어과 관련 선택과목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에서 선택과목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BDP는 국어과 관련 선택과목 간에 탐구의 대상 텍스트 및 중점적으로 적용하는 배경 학문 지식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선택과목에서 역량 중심 목표와 평가모형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각 선택과목은 해당 과목에서 학습한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적 수행 능력을 묻는 역량 기반 과제 및 과제의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에 ‘고교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구체화, 역량을 고려한 선택과목의 구성’, ‘역량을 고려한 평가방안의 마련’, ‘선택과목 내 학생의 주체적 선택 고려’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IB, IBDP, 역량

ABSTRACT

Exploration of Elective Subjects in Competency-based Curriculum, IBDP

— Focusing on elective subjects related to first language

Ryu Sanghee

Korea is preparing to introduce a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202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BDP's elective subjects related to first language as a competency-oriented curriculum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composition of elective subjects in Korea's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first characteristic of IBDP is that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ubject text and background knowledge, the first language-related elective subjects share the goals of the subjects and the evaluation model, with a focus on enhancing the learner's communication capability and knowledge-based exploration capability. The second characteristic of IBDP is that each first language-related subject provides competency-based assessment tasks asking students to select relevant knowledge and skills and solve the given or self-created ques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four implications for Korea's high school grading system: "specification of the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constructing elective subjects in terms of competencies," "concretizing the competency-based evaluation method in the elective subjects," and "considering the choice of students' self-directed exploration in the elective subjects."

KEYWORDS High School Credit System, Selective Subject, IB, IBDP, Competency